



[지속가능] '英 낙농산업,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에 불과'

- 낙농업계, 낙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인식 전환 나서



10월 말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영국 낙농업계가 낙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최근 영국낙농가협회(RABDF)는 낙농가는 물론 주요 산업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낙농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RABDF는 낙농산업에서 젖소의 트림과 방귀로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영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 미만이며, 우유 1리터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 2.9kg CO₂e인데 반해 영국은 약 1.25kg CO₂e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아몬드 우유 1리터를 생산하는데 158리터의 수돗물이 사용되는데 반해 우유는 8리터만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관계자는 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낙농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출처 : farminguk.com, 10월 5일 >

[시장동향] 美, 인력난에 학교우유 공급에도 차질

- 임금 인상 및 특별 채용에도 운송기사 모집에 어려움



최저 임금 인상과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국 낙농업계가 일손 구하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학교우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콜로라도주 공급학교는 학교우유를 운송할 운전자를 구하지 못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가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우유 운송을 위한 특별 채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력난이 계속되며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김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을 인상하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denver.cbslocal.com, 10월 4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